

# 시원한 나눔... 저소득층 교계 지원사업 활발

“아이고~ 시원다.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좋다. 이번 여름은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세평 남짓한 판자집에서 홀로 사는 안장임 할머니(78)가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한여름 땀에 들러붙는 여름 옷자리를 대신해 쿨매트 위에서 한결 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돼서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 취약 계층에 교계 복지 지원이 답지고 있다.

가장 먼저 팔 걷어 부치고 나선 곳은 모금 재단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다. 지난 5월 26일부터 저소득가정에 쿨매트 보내기 캠페인을 두 달간 실시해서 모은 5백만원으로 서울시 75곳에 쿨매트와 여름 이불을 전달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천한 저소득 홀몸 노인가구 27세대에게는 이미 지원이 완료됐다. 안장임 할머니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라 이번 나눔의 일원이 됐다.

지난해 폭염으로 사망한 숫자는 14명. 그 중 65%가 노인이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4째 주에만 119명의 사람들이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더위에 생명 위협까지 받고 있는 노인 및 아동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물론 복지시설에서도 손길이 바쁘다.

해마다 더위로 몸살을 앓는 경북도의 경우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3939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냉방비용으로 5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폭염특보 즉시 SMS 문자를 전송해 주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역시 7월 14일부터 지역 내 홀몸 어르신 759명에 대한 폭염 대비 비상연락체계망 구축에 들어갔다. 복지관 직원들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동원해 직접 방문 또는 안부전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챙긴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에서도 복지관 일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중이다. 복지관 1층에 ‘무더위 쉼터’ 팻말을 달고 8월 말까지 지역 주민들이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폭염 특보기간에는 주말에도 개방하며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쉼터에

- 더위 취약계층 노약자 대상 쿨매트·선풍기·휴이불 지원
- 복지관 내 무더위 쉼터 개설하고 비상연락체계망 구축·방문까지

는 에어컨, 선풍기, 부채, 얼음, 비상구급품과 함께 폭염 대비 행동요령, 일상병 등에 대한 응급처리요령 안내서 등 폭염 대비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 롯데 하이마트, 한국아쿠르트와 연계해 독거어르신 50명에게 선풍기, 이불, 청소기, 쿨매트 등을 지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저소득층 홀서기 지원사업에 이백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은)에서도 지난 7월 삼성물산과 함께 ‘행복애 물들다’를 실시했다. 인건이불, 파자마, 구급



아름다운동행이 저소득층 가구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한 쿨매트를 받고 안장임 할머니가 기뻐하고 있다.

한, LED 비상조명 등 안전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원한 것이다.

저소득층 홀서기 지원사업은 대개 자체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모금과 기업 후원에 의존한다.

아름다운동행측은 쿨한 나눔 캠페인을 준비하며 당초 모금액을 5백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좀처럼 모금액이 모이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바자회를 개최, 다행히 목표액에 맞출 수 있었다.

기업 후원 역시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20곳에서 제안서를 보내면 1~2곳에서 답변이 오는 정도다. 그래서 일찌감치 캠페인을 시작해서 후원 기업들을 모색한다.

이러한 노력 덕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소희)는 지난 7월 저소득 가정 200세대에 쿨매트와 냉풍기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계 복지시설 대부분 내년 홀서기 지원 사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로 제대로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워 있는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이러한 지원 사업은 건강이 약한 어르신들이 여름을 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스스로는 여력이 안 돼 후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물품 전달할 때는 방문 역시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될 수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mailto:linus@hyunbul.com)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하계계절학교 열어

### 성폭력 예방교실도 함께 진행

강원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방학 중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관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개선하고자 하계계절학교 소나무 교실을 실시했다. 계절학교에 참가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은 25명이다. 학생들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7월 21일부터 2주에 걸쳐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측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향상시켜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었다. 대인관계, 사회성향상 등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7월 29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하계계절학교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한 참가 학생이 즐거워하고 있다.

다. 이들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가정폭력 이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동영상 자료를 통해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평가했다.

배현진 기자

## 비껴간 인연에게... 첫사랑 추억담긴 편지

### 부천 원종복지관 회원, 한글 배워 편지대회 수상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갑표)은 복지관내 성인문해교실 수강생이 제10회 비문해(非文解)성인학습자 편지쓰기대회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회원인 정정자씨와 이화복씨는 이 대회에서 각각 장려상과 늘배움상을 수상했다.

정정자씨는 “비껴간 인연에게”라는 글로 지난간 연인에게 전하는 애잔한 글을

써 주위에 감동을 줬다. 편지에서 그는 처음 연인과 만난 “살구꽃 활짝 핀 날”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겼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 늙어가는지” 궁금해하며 한 편의 서정을 완성해냈다. 정씨는 “이따금 하얀 편지지에 연필로 편지를 쓰고 싶었으나 글을 몰라 마음 한구석에 밀린 속제처럼 남아있었다”며 “이렇게나마 모모씨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 마음이 즐겁고 세상이 참 좋아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배현진 기자

## 청담복지관, 자비 쌀 나눔 모금

### 한가위 맞이 저소득 가정에 20kg쌀 후원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하)에서는 금천구 지역내 저소득 가구에 쌀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에 나선다.

다가올 한가위를 맞이해 저소득 가정에 쌀을 전달하는 자비 쌀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월 3일 혜명보육원 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금천구 지역 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및 조손세대 결식아동, 사레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가구당 쌀 20kg씩 총 250가구에 후원할 예정이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의 자비 쌀 나눔 행사는 여느 복지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

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들릴만큼 복지관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후원은 대개 기업들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약 1천만원 정도 되는 후원금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들에 후원 제안서를 보내서 모금을 진행한다. 모금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번도 거르지않고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내년에도 줄곧 이어갈 예정이다.

자비 쌀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온라인 기부 혹은 쌀 20kg을 직접 후원할 수 있다. (02)806-1377, 후원 하나은행 574-910001-31804(예금주: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배현진 기자

## 행복한 조부모되기 프로젝트

### 전주 서원복지관 '내리사랑...' 참가자 모집

어린 손자녀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양육 해답을 알고 싶다면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조)에서는 행복한 조부모되기 프로젝트 내리사랑 치사랑 참가자를 모집한다.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 코치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수업에 이어 하반기 강좌도 개설됐다.

손자녀 양육기술 특강 등 이론 수업은 물론 동화구연, 전통놀이, 체험학습 등 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려준다. 양육에 지친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법도 배울 수 있다.

복지관 측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

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건강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양육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관한 특강은 물론 가족과 함께 양육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까지 코칭해준다"고 밝혔다.

관련 교육 기회가 적은 탓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입소문 덕분에 참가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참가자들의 수강료는 무료다. 7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1회씩 운영되며 총 14회기 수업이다. 시간은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063)227-7483

배현진 기자

## “내가 만든 피자가 제일 맛있어”

### 나래꿈터, 청소년 요리사 직업체험 교실

서울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래꿈터(센터장 보련)에서 요리사 꿈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26일 요리사 특강을 진행했다. 요리 특강에 참여한 약 30여명의 학생들은 요리사가 되는 과정과 다양한 분야의 요리사에 대해 알아가며 직접 피자를 만들었다.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래꿈터 센터장 보련 스님은 “청소년들이 요리사의 직업관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체계적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다양한 진로



요리사의 꿈을 꾸는 청소년들이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고 있다.

를 지원하는 '나래꿈터'는 '나의 미래를 꿈꾸는 터전'의 줄임말로 지난해 개소됐다.

나래꿈터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직업체험장 지원발굴, 학교와 직업체험장간의 유기적인 연계 지원하는 허브역할, 토요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배현진 기자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모집학과 : 사미과, 사미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부터 ~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개 강 :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 원서교부 : 2014년 8월 10일 ~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 개 강 : 2014년 9월 5일 금요일

**활안스님 제 8회 80 화엄경 강의와 제 3회 선문염송 특강**

◇ 일 시 : 2014년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장 소 : 청량리 금강선원

※ 오늘날 현실에 맞는 화엄경 해석 강의

※ 80화엄경 사경본 보급합니다.  
제 1권 ~ 81권 (각권 10,000원)